

## 간호대학생의 융합카데바 실습이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양인숙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Effects of Convergence Cadaver Practice 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In-Suk Ya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unkyeong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융합카데바 실습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시행한 단일군 전후 설계연구이다.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해부학 교실에 참가한 133명의 M 대학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전문직관은 융합카데바 실습 전에는  $3.50 \pm .87$ 에서 실습 후  $3.44 \pm .96$ ( $t=.98$ ,  $p<.330$ ), 전공만족도는 융합카데바 실습 전에는  $3.83 \pm .81$ 에서 실습 후  $3.91 \pm .78$ ( $t=-.95$ ,  $p<.345$ )의 결과를 보였다.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는 ( $r=.54$ ,  $p>.001$ )양의 관계를 보였다. 하위영역의 부분적 결과는 증가하였지만, 앞으로 전공기초지식의 질적 함양을 위한 카데바 실습을 포함한 구체적인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카데바, 간호대학생, 융합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as a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the practice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nvergence cadaver practice 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133 nursing students who were in the anatomy course of M college from October 1 to October 30, 2018. The nursing professionalism resulted in changes from  $3.50 \pm .87$  before the convergence cadaver practice to  $3.44 \pm .98$  ( $t=.98$ ,  $p<.330$ ) after the convergence cadaver practice, and major satisfaction changed from  $3.83 \pm .81$  before the convergence cadaver practice to  $3.91 \pm .78$  ( $t=-.95$ ,  $p<.345$ ) after the convergence cadaver practice. The correlation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major satisfactio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 $r=.54$ ,  $p>.001$ ). Partial results of sub-areas showed increase, however, future studies that aim to develop and investigate the effects of specific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 which includes cadaver practice to enhance qualitative structure of specialized foundation knowledge are needed.

**Key Words** : Nursing Professionalism, Major Satisfaction, Cadaver, Nursing Student, Convergence

\*Corresponding Author : In-Suk Yang (pllolens@hanmail.net)

Received January 30, 2020  
Accepted March 20, 2020

Revised March 1, 2020  
Published March 28, 2020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과학기술과 의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의학은 눈부시게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와 함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인체에 대한 깊은 지식을 학습하는데도 중요해지고 있다[1]. 특히 간호사는 인체에 대한 심도 깊은 지식을 기본 바탕으로 환자의 질병을 치유하는 일에 근무하는 직업인으로서 이러한 인체 지식은 전공기초 과목인 해부학을 통하여 학습하게 된다[2]. 해부학 교육은 Cadaver를 이용해서 실습의 기회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인체 해부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게 되며, 실제 다양한 구조물을 직접 만지고 관찰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기억되도록 한다[3]. 간호교육에서 해부학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실습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81.6%, 간호대학 교수의 95.5%가 카테바 실습교육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4]. 또한 카테바 실습교육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인 경우에 인체구조와 기능에 대해 이해와 간호학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아졌다고 보고하였다[4]. 이처럼 해부학 교육에서 카테바 실습교육은 기초전공에 대한 지식을 통합할 뿐 만 아니라 간호학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5].

간호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간호대학생이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난 후 간호사로서 전문직관을 가지고 임상실무를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는 인재양성에 있다[6]. 간호전문직관이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활동 과정, 간호사 직업에 대한 의식적인 견해를 의미한다[7]. 간호전문직관은 가치관에 근거를 두고 있고, 행동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간호대학생 및 간호사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8]. 또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전공만족도, 사회성 및 자아존중감과 비슷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9]. 이러한 간호전문직관은 간호교육을 통해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간호의 정체성을 증가시키고 고착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호 대학생에게 있어 간호전문직관 정립과 발달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10].

대학에서는 질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입학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학업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

로 언급되고 난 후 전공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11]. 간호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수업 참여 태도에 결정적으로 작용해서 대학 입학 후에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다[12]. 특히, 간호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만족감은 졸업 후에도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되며, 전공 교육내용에 대한 흥미도와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3]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카테바 실습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카테바 실습을 통한 학업성취도[14],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대한 태도[15], 자기효능감, 죽음태도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5], 스트레스와 실습태도[16], 영적안녕과 죽음에 대한 태도[17]가 있으며,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융합카테바 실습교육 전과 후에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에 대한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기초교과목인 카테바 실습교육 운영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융합카테바 실습교육을 진행하고 난 후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1. 간호대학생의 융합카테바 실습에 따른 간호 전문직관의 차이를 규명한다.
2. 간호대학생의 융합카테바 실습에 따른 전공 만족도의 차이를 규명한다.
3. 간호대학생의 융합카테바 실습에 따른 간호 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융합카테바 실습 전과 후에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를 검증하기 위한 유사실험연구로서 단일군 전후 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M대학교의 재학 중인 간호학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G-power 3.1.9를 사용하여 효과크기 .3,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했을 때 최소 147명으로 나타나 진행하였으나,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14명을 제외하고 총 13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간호전문직관

본 연구에서는 Yeun 등[7]이 개발하고 Han 등[18]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문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의 하위영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한다. 도구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나타낼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Han 등[1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4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이었다.

### 2.3.2 전공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Ha[19]가 개발하고 Lee[20]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나타낼 수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2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5이었다.

##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K대학교 해부학 교실의 카테바 실습교육에 참여한 133명에게 직접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고 실시하였다. 융합카테바 실습교육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부학 전공교수 4인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카테바 실습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본 연구자는 K대학교 해부학 교실을 방문하여 카테바 실습 과정을 확인하고 실습실 등의 환경을 보고 사전회의를 하였다. 주임교수와 4차례 정도의 메일을 통한 카테바 실습의 목적, 내용,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의논하였다. 카

테바 실습 프로그램은 선행연구[5]에 근거하였다. 또한 참여 학생들의 요구 및 K대학교 해부학 교실의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기초로 하였다. K대학교 의과대학교 학생들이 해부학 실습 중인 사체를 사용하였으며, 의과대학교 학생들이 해부학 실습이 없는 요일에 방문하여 실습을 진행하였다. M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이 4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반별로 순차적으로 일주일에 1회 방문하여 총 4시간 동안 실습을 진행하였다. 1회 방문 시 각 반의 간호대학생을 10명 이하로 하여 4조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4구의 사체를 대상으로 각 조별로 돌아가면서 실습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론 교육은 전체 학생들을 모아서 강의실에서 50분 동안 진행하였으며, 이론 강의가 끝난 후에는 해부학 실습실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뼈대계통, 근육계통, 장기계통을 조별로 각 50분 동안 카테바 실습을 하고 10분동안 휴식을 하였다. 또한 카테바 실습 교육 종료 후에 실습일지를 나눠주고 실습경험에 대해 기록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은 해부학 교실을 가기 전일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카테바 실습이 모두 끝난 다음날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 2.5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설문지를 작성 전에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난 뒤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대상자에게 실시하였다. 연구에 불참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과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철회 즉시 대상자에 대한 자료는 폐기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리 및 분석할 것이고,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계처리 경우 개인 식별정보를 코드화 할 것을 설명하였다. 연구자가 연구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내용을 직접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았다.

## 2.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융합카테바 실습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변화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융합카테바 실습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변화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 4)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은 남자 간호대학생이 16.5%(22명), 여자 간호대학생은 83.5%(111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1세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68.4%(91명), '기독교'가 15%(2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님 생존여부에서는 '부모생존'이 99.2%(132명)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선택 동기는 '취업'이 42.9%(57명), '적성과 흥미'가 36.1%(48%), '가족 권유'가 15.8%(21명)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3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ean±SD
Gender	Male	22(16.5)	
	Female	111(83.5)	
Age		21	21.56±1.36
Religion	Christianity	20(15.0)	
	Buddhism	7(5.3)	
	Catholic	15(11.3)	
	no religion	91(68.4)	
Parental Survival	Parents	132(99.2)	
	no parents	1(0.8)	
Nursing Choice	Job	57(42.9)	
	interest	48(36.1)	
	family	21(15.8)	
	social voluntary	2(1.5)	
	school ranking	4(3.0)	
	other	1(0.8)	

#### 3.2 융합카테바 실습교육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융합카테바 실습에 따른 간호 전문직관을 분석한 결과 융합카

테바 실습 전에 3.50±.87점에서 실습 후 3.44±.76점 ( $t=.98, p<.33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위영역 별로 보면 '전문직자아개념'은 융합카테바 실습 전에 3.88±.80점에서 실습 후 3.74±.66점이었다. '사회적 인식'은 융합카테바 실습 전에 3.31±.97점에서 실습 후 3.37±.77점이었다. '간호의 전문성'은 융합카테바 실습 전에 3.88±.74점에서 실습 후 3.68±.67점이었다. '간호역할'은 융합카테바 실습 전에 3.82±.79점에서 실습 후 3.69±.64점이었다. '간호의 독자성'은 융합카테바 실습 전에 1.95±1.13점에서 실습 후 2.13±1.25점으로 나타났다.

#### 3.3 융합카테바 실습교육에 따른 전공만족도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카테바 실습에 따른 전공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융합카테바 실습 전에 3.83±.81점에서 3.91±.78점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95, p<.345$ ). 그러나, 일부 항목을 보면 '내 전공학과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나와 잘 맞다'는 융합카테바 실습 전에는 3.50±.82점이었고, 실습 후 3.74±.80점이었다. '전공 시험은 적절한 양으로 주어지고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융합카테바 실습 전에는 3.47±.92점에서 실습 후 3.83±.90점이었다. '전공 공부를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적절히 주어진다'는 융합카테바 실습 전에는 3.63±.80점에서 실습 후 3.83±.84점으로 나타났다.

#### 3.4 카테바 실습교육에 따른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간의 관계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54, p>.001$ ).

Table 4. Nursing professionalism and Major Satisfaction correlation (N=133)

Variables	Nursing Professionalism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1	
Major Satisfaction	.54	1

\* $p<.05$

Table 2. Nursing Professionalism Following Convergence Cadaver Practice

(N=133)

Variables	Item	Pre	Post	t	p
		Mean ±S.D	Mean ±S.D		
Nursing Professionalism	1. Nurses possess mature personality with philanthropic spirit.	3.71±.80	3.68±.73	.24	.812
	2. Nurses as professionals continuously put effort to obtain professional knowledge.	4.10±.78	3.83±.62	3.02	.003*
	3. Nurses put endless efforts to hold good character.	4.03±.72	3.86±.63	1.92	.057
	4. Nurses in uniform looks like professionals.	3.89±.90	3.68±.69	2.11	.036*
	5. Nurses seem to actively participate in public activities.	3.62±.87	3.58±.67	.59	.560
	6. Nurses demonstrate responsibility and ethics required by a professional.	3.91±.71	3.79±.64	1.42	.158
	<b>Professional self-concept domain average</b>	<b>3.88±.80</b>	<b>3.74±.66</b>		
	7. Social status of nurses seem to be high.	3.26±.95	3.27±.77	-.14	.893
	8. Nurses are independent and autonomous in duty performances.	3.20±.97	3.29±.83	-.82	.414
	9. Nurses receive satisfactory psychological compensation and appropriate rewards through the support of the institution and perception.	3.07±1.02	3.21±.86	-1.23	.220
	10. Nurses are respected as professionals from other professional in the hospital.	3.35±.96	3.44±.76	-.79	.433
	11. Nurses collaborate with other medical professionals along with medical doctors to demonstrate professionalism.	3.66±.94	3.65±.62	.08	.938
	<b>Social recognition domain average</b>	<b>3.31±.97</b>	<b>3.37±.77</b>		
	12. Nursing is a complex and difficult job that can be done only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3.95±.76	3.69±.65	2.79	.006*
	13. Professionalism is shown through the concept of benevolence within the Eastern philosophy.	3.74±.72	3.60±.69	1.49	.140
	14. Nurses are acknowledged by special knowledge and skills that may be performed only by nurses.	3.94±.76	3.74±.66	2.29	.023*
	<b>Nursing professionalism domain average</b>	<b>3.88±.74</b>	<b>3.68±.67</b>		
	15. Professional task performance and mature characters are shown in professional relationships.	3.87±.71	3.73±.64	1.70	.092
	16. If a special nursing theory is developed and published in Korea, it may be competitive with other foreign theories.	3.77±.86	3.64±.64	1.38	.170
	<b>Role of nursing practice domain average</b>	<b>3.82±.79</b>	<b>3.69±.64</b>		
17. Nurses do not work diligently due to professionalism of nurses when compared with other professionals.	2.03±1.17	2.12±1.23	-.58	.564	
18. Nurses are not professional because they perform tasks that are I between other professionals.	1.87±1.08	2.14±1.27	-1.70	.091	
<b>Dependence of nursing domain average</b>	<b>1.95±1.13</b>	<b>2.13±1.25</b>			
	Total	3.50±.87	3.44±.76	.98	.330

\*p&lt;.05

Table 3. Major Satisfaction Following Convergence Cadaver Practice

(N=133)

Variables	Item	Pre	Post	t	p
		Mean ±S.D	Mean ±S.D		
Major Satisfaction	1. I am interested in the contents of my major course materials.	3.68±.78	3.85±.75	-1.69	.094
	2. I am fit with the contents that I learn in the course.	3.50±.82	3.74±.80	-2.34	.021*
	3. My major is an appropriate department for me.	3.77±.85	3.88±.77	-1.05	.297
	4. I am satisfied with my major.	3.79±.80	3.91±.76	-1.16	.247
	5. I feel that I am learning something valuable.	3.91±.76	3.96±.75	-.08	.936
	6. Nursing textbooks are worth learning.	3.96±.69	3.94±.80	.24	.811
	7. I tell other people about my major with pride.	3.75±.89	3.84±.75	-.89	.373
	8. I feel that my major is popular.	4.18±.73	4.02±.77	1.63	.106
	9. Many people would want to enter the same department as mine.	4.07±.78	4.02±.80	.58	.563
	10. My degree in the current department will be of a social advantage.	4.14±.75	4.02±.75	1.27	.207
	11. My parents think proudly of my major.	4.14±.77	4.08±.75	.63	.529
	12. My major will be helpful in my post graduation career.	4.15±.78	4.13±.76	.23	.821
	13. The faculties have a clear aim in teaching and explain things easily.	3.76±.87	3.89±.79	-1.15	.252
	14. Course examinations are of appropriate amounts and is helpful for my studies.	3.47±.92	3.83±.90	-3.12	.002*
	15. Opportunities to advance coursework studies are given appropriately.	3.63±.80	3.83±.84	-2.02	.046*
	16. Faculties provide advices on the methods and contents of studying in the major areas.	3.70±.79	3.83±.79	-1.25	.215
	17. I can meet with my faculties whenever I want.	3.71±.92	3.80±.73	-.91	.366
	18. Communication between faculties and students are made smoothly.	3.60±.90	3.76±.78	-1.47	.145
	Total	3.83±.81	3.91±.78	-.95	.345

\*p&lt;.05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융합카데바 실습교육이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이 융합카데바 실습을 하고 난 후 간호전문직관 평균점수는 융합카데바 실습 전에는 3.50점이었으며, 실습 후에는 3.44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ho 등[21]의 연구결과에서 임상실습을 하지

않은 1학년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시행한 3,4학년 간호대학생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았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임상실습 전에 생성되었던 간호전문직관이 임상실습을 하면서 부정적인 성향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Ham 등[22]의 연구에서 4학년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을 측정한 3.43점의 결과와 유사하며, 3년제 1,2,3 학년을 대상으로 한 Yeun 등[7]의 연구에서 평균 3.60점의 결과 보다는 낮았다. 이는 장시간 동안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신체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하였으며, 카데바 실습을 하는 동안 포르말린

냄새 등의 실습실 환경의 영향으로 불편감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리고 카데바 실습을 하면서 신체와 관련된 용어를 한글, 구용어, 신용어의 3가지 모두로 설명해 주어 좋았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2학년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되었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더불어, 학제의 차이와 해당 학년의 차이, 비교프로 그램 시행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추후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으로 사료된다.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이 융합카데바 실습 전에는 3.88점에서 실습 후 3.74점으로 소폭 감소하였지만, 융합카데바 실습 전·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Seo 등[23]의 연구에서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카데바 실습 전에는 3.72점에서 이후 3.89점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상승된 결과와는 상이하다. 이는 카데바 실습을 시행하는 해부학 교실이 다르며, 해부학 교실의 교육환경 등 전체적인 커리큘럼의 상이함으로 볼 수 있다. Song[24]의 연구에서는 간호학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높고 이후 낮아지며, 간호사 초기에는 더 낮고, 간호사 경력이 쌓이면서 점점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졸업 후 실제 임상에서 현실을 경험한 간호사들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학생들보다 낮을 수 있고, 간호대학생의 경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의 분량이 많아지고 임상실습을 통해 다양하게 병원 환경을 경험함으로써 입학 시 보다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사회적 인식'은 융합카데바 실습 전에는 3.31점이고, 실습 후에는 3.37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카데바 실습을 통해 간호학과의 교과서 속의 지식이 임상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으로 인식이 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간호사에 대한 외적으로 보이는 친절함, 의사와 환자 사이의 중계자 역할도 있지만 간호술기, 의학지식 등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부분이다. '간호의 독자성'은 융합카데바 실습 전에는 1.95점에서 실습 후 1.1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u 등[25]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3.59점과 Cho 등[21]의 3.56점으로 낮게 보고된 결과와 동일하다. 이는 간호사들의 자율적인 실무가 부족한 것을 말하며, 다른 건강전문가들과 동등하지 못한 관계를 나타낸다[26]. 예를 들자면, 과학적 지식체를 바탕으로 근거

기반간호를 수행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하여 간호과정으로 간호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서 인격적 완성을 갖출 때 독자성에서 낮은 간호전문직관을 고취할 수 있다. Weis 등[27]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사의 활동인 직분에 대한 직업의 의식적 견해로서 간호활동에 있어서의 기준과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간호전문직관이 임상간호사가 되어도 이어 질 수 있도록 학년별 체계적인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과 임상실습 병원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간호전문직관을 가진 졸업학년들이 임상에 많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결과가 간호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이 융합카데바 실습을 하고 난 후 '전공만족도'는 융합카데바 실습 전에는 3.83점이었으며, 실습 후에는 3.91점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간호대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측정된 Jang[28]의 연구결과 3.89점, 간호대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Lee 등[29]의 연구결과 3.77점, 간호대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한 Park 등[30]의 연구결과 3.86점과 유사하다. 이는 전공기초필수 과목인 해부학을 이론으로 배우고 난 후 해부학 실습을 가기 때문에 학문적인 깊이가 증가되어 전공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간호사는 전문직이라는 대중의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학생들 본인이 학과를 지원할 때 적성이나 가치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지원하였기에 간호학과 졸업 후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여겨진다.

간호대학생이 융합카데바 실습을 하고 난 후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는 양의 상관관계( $r=0.54, p<0.001$ )를 나타내었다. 이는 Kim 등[31]의 학년별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과 전공만족도가 통계적으로 강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는 내 전공학과를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우리 부모님은 나의 전공학과를 떳떳하게 생각할 것이다.'의 항목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즉, 간호대학생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나 인기가 있는 학과라고 생각하는 등 사회적인 인식이 긍정적임을 지각하고 간호전문직관이 잘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Lim[32]의 남자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과 전공만족도는 중간 정도의 양의 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즉 전공만족도가 좋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이었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 직업의 의식적 견해로서 간호사가 전문직으로 좀 더 발전하기 위한 의식의 출발점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간호사로서의 첫 단계를 시작하는 간호 대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해서 현재 본인이 정한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로[33] 전공에 대한 불만족은 간호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난 후 간호사가 되었을 때 직무수행을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올바른 신념과 가치 및 태도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된다[34]. 이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혼란스러움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연결된다. 결국 긍정적인 전문직관을 형성하고 간호사로서 능력을 갖추어 임상현장에 탁월한 전문가로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길러내기 위해서 대학생활 동안 전공만족도가 함양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융합카테바 실습을 통하여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카테바 실습은 학교별로 이론 교과목에서 일부 카테바 실습을 진행하는 곳도 있고,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You[35]의 연구에서 학부생들의 연구프로그램 참여가 융합적 태도와 기술을 훈련하는데 효과적이며,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앞으로 간호학과의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에 간호학과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지식 함양을 통한 간호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융합역량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카테바 실습이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여 카테바 실습교육 운영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전문직관은 하위영역의 '사회적 인식'이 차이를 보였으며, 전공만족도 또한 부분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학과 대학생의 카테바 실습 프로그램 시에 대상 학년의 요구도와 수준을 설정하여 시기 등을 조절하여 진행이 필요하다. 또한 전공교과목과 기초교과목의 지식을 융합한 융합간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로 적용하여 효과를 확인하

는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1] W. S. Kim. (2012). The Effects of adjustment school students' opinions on the examination of dissection. *Korean J Phys Anthropol*, 25(2), 77-86.
- [2] D. I. Kim. (2015). A survey study on the need for medical executions: A case study of nursing university students and nursing university. *Korean J Phys Anthropol*, 28(2), 119-25.
- [3] J. L. Coulehan., P. C. Williams, D. Landis & C. Naser. (1995). The first patient: reflections and stories about the anatomy cadaver. *Teaching and Learning in Medicine: An International Journal*, 7(1), 61-66.
- [4] D. I. Kim. (2015). Questionnaire survey analysis on necessity of cadaveric dissection for nursing students: in scope of nursing students and professors. *Kore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28(2), 119-125. DOI : 10.11637/kjpa.2015.28.2.119
- [5] Y. S. Seo., C. Y. Jeong., Y. C. Kwon (2017). Effect of Education in Cadaver Practice on the Self-efficacy, Attitudes to death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5), 317-324.
- [6] R. S. Jung., M. J. Jeong & L. Y. Yoo. (2014).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 27-36.
- [7] E. J. Yeun., Y. M. Kwon & O. H. Ahn.(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1091-1100.
- [8] D. Weis & M. J. Schank. (2000). An instrument to measure professional nursing valu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2(2), 201-204.
- [9] E. J. Yeun & Y. M. Kwon. (2007).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3(3), 285-292.



- [10] H. O. Jeon. (2016).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Social Self - efficacy on College Life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2), 171-181.
- [11] H. Park, Y. Han & M. Kim. (2013). A Study on the exploring the academic persistence of universities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8(4), 567-580.
- [12] Y. J. Song. (2013).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f university studentson their school*.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 [13] J. S. Jung, M. J. Jeong & Yoo, I. Y. (2014).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 27-36.
- [14] B. S. Kam, M. J. Kim, S. I. Joo, S. J. Yune, S. J. Lim, S. Y. Lee & S. Y. Baek. (2018). Relationship of peer-and self assessments in the anatomy laboratory and academic performance of gross anatomy. *Kore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31(1), 1-7. DOI : 10.11637/kjpa.2018.31.1.1
- [15] M. J. Kim., S. Y. Park., S. J. Park., J. Y. Park., Y. H. Lee & E. A. Choi. (2017). Comparative study of nursing students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attitudes toward human tissue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anatomy camp program *Kore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30(3), 99-107. DOI : 10.14400/JDC.2017.15.5.317
- [16] J. K. Kim., Y. J. Kim. & E. Burm (2016). Comparative Study on the Stress and Attitudes in Nursing Students after Anatomy Cadaver Practice. *Asia-Paco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 Sociology*, 6(4), 111-122.
- [17] M. R. Lee. (2015). A Study on the Spiritual Well-being and Attitudes to Death in Nursing Students after Anatomy Cadaver Practice. *Asia-Paco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 Sociology*, 5(4), 287-295. DOI : 10.14257/AJMAHS.2015.08.29.
- [18] S. S. Han, M. H. Kim & E. K. Yun. (2008).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1), 73-79.
- [19] H. S. Ha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 [20] D. J. Lee. (2004).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21] H. H. Cho, N. H. Kim(2014). Relationship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 image, and core elemen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that nursing students perceiv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4), 548-557. DOI :10.5977/jkasne.2014.20.4.548
- [22] Y. S. Ham., H. S. Kim., I. S. Cho & J. Y. Lim. (2011).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536-544.
- [23] Y. S. Seo, C. Y. Chu & Y. C. Kwon. (2017). Effect of education in cadaver practice on the self-efficacy, attitudes to death and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5), 317-324.
- [24] H. R. Song. (2010). *Comparative study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aring perception in nurses and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Daejeon.
- [25] H. J. Gu & O. S. Lee (2015). The correlation between nurse's image, biomedical ethics and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1), 7356-7366.
- [26] M. Takase, E. Kershaw, L. Burt. (2001). Nurse-environment misfit and nursing practic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5(6), 819-826. DOI :10.1046/j.1365-2648.2001.01933.x
- [27] D. Weis & M. J. Schank. (2000). An instrument to measure professional nursing values. *Journal of Nursing Research*, 32(2), 201-204.
- [28] T. J. Jang. (2015).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leadership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Keimyung, Daegu.

- [29] M. R. Lee & M. J. Kim. (2018). The influences of college adaptation, satisfaction of major and clinical practice on vocat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6), 197-208
- [30] S. H. Park & S. H. Han. (2016). Effect of Self-resili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8), 517-526.  
DOI :10.5762/KAIS.2016.17.8.517
- [31] J. E. Kim et al. (2011). The relation between nursing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Ewha Nursing*, 45, 29-44.
- [32] K. M. Lim., H. Y. Kim & G. J. Kim. (2017). The influence of nurse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0), 423-431.
- [33] S. R. Lee. (2011). *Nurse image, satisfaction of major effect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male students in nursing.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Suwon.
- [34] D. Barron, E. West & R. Reeves. (2007). Tied to the job: Affective and relational components of nurse retention. *Journal of Health Services Research & Policy*, 12(1), 46-51.
- [35] J. W. You. (2019). The effects of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on convergence competency,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10), 114-121.

양 인 숙(Yang In-Suk)

[정회원]



- 2006년 2월 : 대전대학교 (학사)
- 2008년 8월 : 대전대학교 (석사)
- 2017년 2월 : 건국대학교 (박사수료)
- 2017년 4월 ~ 현재 :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가상현실시뮬레이션, 노인간호학
- E-Mail : pllololens@hanmail.net